

과학기술의 산업화

과학: 학문적 철학

기술: 속도로 고수

학과: 도시 사회 학과

학과:

인문: 문학 영

서론-접근하기

내게 익숙한 공간을 낯선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몇 시간을 있어도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았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다.

나는 지금까지 보아 왔던 상록야학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은 어떻게 술자리를 갖고, 어떻게 춤을 추고, 어떻게 토론하는지를 보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속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많이 빠져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일 것이다.

나는 야학, 그 중에서도 상록야학이 갖는 색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상록야학이라는 오래된 조직이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알아보고, 현재와 미래의 빠른 변화의 흐름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자신의 조직을 유지해 나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그 속에서 야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현재 야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론

1. 상록야학으로 들어서기

지하철 1호선 회기역에 내리면 바로 보이는 건물의 2층 창문에 '상록 중·고등학교, 상록야학'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건물 자체도 낡아 보이고, 창문에 붙인 글자도 오래되어 색이 바래있다. 하지만 그것을 누구도 깨끗한 새것으로 바꾸어 붙이려 하지 않는다. 그 글자는 회기역에서 바로 보이는, 즉 가장 먼저 외부인의 눈에 띠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록야학의 사람들은 그 색이 바랜 글자를 여전히 달고 있다.

또한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상록 중·고등학교'라고 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상록야학의 구성원인 자신이 밤에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남들이 자신을 야학의 학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일반 중·고등학생처럼 봐주기를 마음속으로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야학'이라는 단어속에는 사회적·역사적인 의미가 어느정도 남아 있어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들을 보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야학'은 1960년대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배우고 싶은 열망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비록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처지더라도 그것을 남들이 인식하는 것이 싫은 것이다. 또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그들의 가난은 빈부의 상대적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가난이지, 의식주의 생활이 어려운 절대적 가난은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을 가난한 이들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상록야학의 이름에 대한 질문에서 학생들은 '상록야학'보다는 '상록학교'라는 이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질문: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학교 명칭과 그 이유는?

<학생>

상록학교(10명): 야학이라는 말에서 고통이 느껴져서, 개념이 뚜렷해보여서, 누구나 쉽게 기

억할 수 있고 친근감이 있어서, 야학이라는 말이 없어서

상록야학(8명): 야학과 학교라는 명칭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간단명료하고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어서, 친근감도 느껴지고 발음상 편리해서, 학교 규모가 타 야학에 비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상록 중·고등학교(4명): 중·고등학교 과정을 정당하게 마치는 느낌이어서

상록 야간 중·고등학교(1명): 저녁에 공부하니까

상록수학교(1명): 자존심이 있잖아요

<교사>

늘푸른 학교 상록야학(6명): 제도권 학교와 차이도 있으며, 주경야독의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름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상록야학(3명): 전통적으로 익숙해진 이름이어서, 그렇게 많이 부르기 때문에, 출직하고 당당해질 수 있어서

늘푸른 야학 상록학교(3명): 부르기애에 부담없고 느낌이 좋아서, 우리 야학이 주는 인상이 다 들어가 있어서

상록학교(2명): 간결하고 명확해서, 가장 학교같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상록 야간 중·고등학교(1명): 배움의 질적인 내용을 떠나 서로 의지하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교자 『푸른그루』 1999년 열세 번째 中-

여기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선호하는 이름과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야학'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 또한 그 말이 없는 데서 친근감을 느낀다. 물론 '상록야학'이라는 명칭은 흔히들 쓰는 말이니만큼 그 말에서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야학'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느끼고, 심지어 '고통'까지 느껴진다고 했다.

이에비해 교사들은 오히려 '야학'이라는 말에 더욱 큰 친근감을 느끼고, 또한 제도권학교(중·고등학교)와 차이를 부여한다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대학에 다니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중·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나이 많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힘들다. 이들은 대부분 야학에 올 때, 자신이 가난하고 못배운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봉사정신(많건 적건 간에)을 가지고 오기때문에 '야학'이라는 말을 오히려 당당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당당해질 수 있다'고 한 말에는 동시에 그들이 어느정도 당당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야학'이 가지는 여러 의미들을 스스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기가 힘들기때문에 일부러 '야학'이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당당함'이라는 의미 속에 감추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당당해지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그 내면의식이 표출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상록야학에서 2년에 한 번 가는 수학여행에 관해 말하던 중에 관광차에 불일 이름에 대한 말이 나왔다. 그 때, 교무부장은 주저없이 '상록학교'라고 할 것을 당부했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상록야학'이 낫겠다고 건의했음에도 교무부장은 끝까지 '상록학교'를 고집했다. '상록야학'이라고 쳐붙이고 다니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거북해 할 거라는 거였다. 그것은 학생들이 거북해 할거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도 그 단어를 거북해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상록야학의 학생들 중 일부는 자신이 야학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한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담임선생님이 집으로 전화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다. 또한 교사들 중 일부도 자신이 야학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이나 대학교 동료들이나 가족들에게 알리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다. 교무부장과의 술자리가 있었는데, 술을 몇 잔 마신 후 그는 자신이 몇 년전까지 직장 동료들에게 야학에 다닌다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았으며, 야학에서 전화가 올까봐 항상 초조해 했다고 말했다. 내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는 “왠지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다”고 얘기했다.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인식, 즉 야학이라는 곳은 웬지 일반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같고, 야학의 역사적 측면에서 운동권적 성격을 띤 적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숨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무의식의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상록야학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 속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편으로는 그것을 외부와 자신에게 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그것은 ‘야학’이라는 단어가 역사적·사회적으로 형성된 개념과 인식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회기역을 나와서 상록야학이 있는 건물로 들어서는 골목길이 보인다. 회기역에서 곧장 위로 올라가면 경희대학교와 통하므로 그 길은 출입문, 밤집들, 악세사리점 등 화려한 건물이 많이 보이고, 길도 차가 다니는 넓은 길이다. 그러나 상록야학의 건물로 통하는 길은 매우 비좁고, 조명도 없어서 밤에는 특히나 더 음침하다. 길을 들어서면 바로 원쪽에 화장품점이 있는데 그 앞에 놓인 스피커에서 끊임없이 귀가 아플 정도로 큰 소리의 신세대 음악이 들린다. 그 길에 화장한 고등학생 남녀가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으며, 심지어 검은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 10여명이 길을 에워싸고 있는 것도 본 적이 있다. 그럴때면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당황하여 황급히 건물로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다.

2층에 ‘상록야학, 상록 중·고등학교’라고 써있는 건물로 들어서면, 1층에 보습학원의 간판이 보인다. 오른쪽에는 교실의 문이 있는데, 가끔 문이 열려 있을 때면 깨끗한 책상과 의자가 보인다. 원쪽은 상담실처럼 보이는데,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올라서면 낡은 페인트칠 위에 상록야학의 공지사항을 쓴 종이가 붙어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2층에 올라서면 나무판에 ‘상록야학’이라고 쓴 간판이 문 위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문 위에 붙어있어 잘 눈에 띠지는 않는다.

그 문의 오른쪽으로는 컴퓨터실의 문이 있는데, 대개 잠겨있다. 요즘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고자 인터넷 교육을 시도하고 있으나 컴퓨터의 서버 접속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컴퓨터가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모든 학생의 정규수업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모둠(특별활동)시간에 컴퓨터반이 있어서 학생들 몇 명은 컴퓨터 수업을 받을 수 있다. 해마다 신청자가 모자른 다른 모둠반들과는 달리, 컴퓨터반은 매년 신청자가 너무 많아 곤란을 겪을 지경이다. 야학의 학생들도 변화하는 시기에 맞추어 자신도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40~50대의 학생들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시대에 뒤쳐진 듯한 느낌을 없애고자 컴퓨터를 배우려 하고, 10~20대의 학생들은 현실적 필요에 의해 컴퓨터를 배우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의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나 현재 야학의 재정상 이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가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상록야학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전에 야학교사였던 사람이 컴퓨터를 기증하고 있고, 여러 기관에서 컴퓨터를 새로 바꿀 때 그 전에 쓰던 컴퓨터를 기증하는 일도 있다. 이렇게 컴퓨터를 늘리고, 그 컴퓨터에 인터넷을 설치해 놓고 있다. 물론, 아직은 컴퓨터실의 공간이 비좁고, 컴퓨터도

넓고 10여대 밖에 안되지만, 이 문제를 놓고 다각도로 방법을 찾으려 한다.

2. 상록야학으로 들어가기

1) 변화 양상

상록야학은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40분씩 4교시 수업을 하고, 1, 2 교시를 연달아 한 후에 10분 쉬고, 3, 4교시를 연달아 한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다. 이러한 수업시간은 1976년 3월 5일에 개교할 때와는 조금 다르다.

당시 중랑천변에는 약 만 채의 영세민이 무허가 판자촌에 밀집되어 미취학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가정이 어려워 배움의 기회를 잃고 배움을 멀망하는 이들에게 종학교 과정의 교육을 1년 과정으로 이수시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박한 꿈으로 새마을 상록종학교는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50분 수업으로 하루 3시간의 배움터에는 신입생 40명과 교사 8명이 모였습니다.

-교감선생님, 「1976-1996 상록야학의 출발, 주경야독의 합창속에서」 中¹⁾

상록야학의 개교 때에는 7시부터 10시까지 50분씩 3교시를 했으나 지금은 7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40분씩 4교시를 한다. 또한 그 때는 종학교 1년 과정만 있었는데, 지금은 종학교, 고등학교 모두 2년 과정이다. 이렇게 바뀐 데에는 물론 이유가 있다. 우선, 시간을 7시에서 7시 30분으로 바꾼 것은 학생의 연령층이 점점 직장을 가진 20대, 30대, 40대, 심지어 50대까지 다양화된 데에 있다. 직장을 마치고 오려면 아무래도 7시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또 3교시에서 4교시로 같은 시간 속에 수업 회수는 늘린 것은 과목을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겸시과목을 공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음악, 미술, 한문, 교양, 한율(학급회의), 모둠(특별활동) 같은 시간을 넣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야학이 너무 겸시를 위주로 하는 것을 막고자 한 노력이었다.

또 1년과정을 2년으로 늘린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연령층의 변화에 맞추고자 한 것이었다.

숙명처럼 주어진 가난에 울며 배움을 일찍 포기하고 거친 세파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학생들, 외판님에서 첨첩산중 시골에서 상경해 와 도시의 변두리를 서성거리며 남몰래 술던 수많은 학생들, 무거운 선반을 만지고 재봉틀을 돌리고 구두를 닦고 물건을 배달하며 사환 등으로 생활하면서도 배움을 찾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탈선의 소지가 너무도 심각하게 주위에 널려 있는 오늘날의 혼탁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근로 청소년들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그들과 손을 잡을 때, 병역 문제 등과 객지 생활의 어려움으로 헤매이며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딛고 다시 찾은 정든 학교를 또 계속하지 못하고 그들이 중도에서 떠나야 할 때 삶의 힘겨운 무게를 느껴 봅니다.

-최대천(교감), 「1976-1996 상록야학의 출발, 주경야독의 합창속에서」 中

1) 이 글은 상록야학의 교감선생님이 쓴 글로, 그는 야학을 세울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므로 상록야학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장선생님은 학교의 재정적 측면을 도울 뿐 야학의 일에는 많이 참여하지 않는 반면, 교감선생님은 국어과목을 담당하여 해마다 전 학년 수업을 모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1980년대는 이처럼 가난에 짜들어 어쩔 수 없이 야학을 찾은 근로 청소년들이 많았다. 그러나 사회가 변함에 따라 이제는 가난에 짜들어 공부를 도저히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인터뷰 中-5년 이상 상록야학 교사를 한 사람-생글교사)

-교감선생님은 '야학은 없어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데요. 정말로 제도권의 학생들이 늘어났다면 야학이 없어지고 제도권학교가 늘어나는 것은 올바른 현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야학에 오는 아이들은 양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거든요. 이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 둔 건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서적인 이유가 더 큰 거죠. 그런데 야학의 시스템은 경제적 이유만 둘봐 왔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교사들은 그런 학생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데, 담임들조차 그렇지 못하는데요.

-또한 야학의 중요한 경험 중의 하나가 나이든 사람, 특히 30-40대 주부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90년대 중반 이후로 제가 있었을 때를 보면요. 아주머니의 비율이 해마다 고 10회+고 11회+고 12회+고 13회+고 14회+그리고 현재 고 15회는 거의 100%라고 봐야죠. 그렇게 나이드신 주부들이 늘어나니까 상록 시스템도 그렇게 변하고, 상록 시스템이 그렇게 변하니까 또 나이든 사람이 늘어나고… 악순환이죠. 그러다보니까 나이 어린 학생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내가 수업에 들어가는 종 3반의 경우, 이들이 맨 처음 입학할 때부터 지켜봐 왔는데, 처음에는 어린 학생들이 많았다. 13살-20대까지의 학생들이 5-6명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1년 남짓해서 그만두었다. 13살이었던 두 남자아이가 중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가정문제 때문이었다. 그들의 부모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들은 혼란스러웠고, 부모는 그런 그들에게 학교를 다닐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 중 한 아이의 어머니는 오히려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말고, 경정고시를 빨리 합격해서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꾸준히 야학에 나오다가 그 두 아이가 친해져서 둘이 같이 빠지는 날이 많아지는 거였다. 그러다가 어느 일요일에 야학에서 그 두 아이와 그 아이들보다 나이가 서너살은 많은 두 여고생이 컵라면을 끓여먹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 뒤 그들은 종종 야학에 숨어있는 것이 발견되다가 들키자 그 뒤부터 야학에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6시에 하는 교사회의에서 큰 문제화되자 그제서야 교사들은 그 아이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졌다. 그 문제의 핵심에는 그 아이들의 잘못을 걱정하는 것도 있었으나, 그 아이들이 야학의 열쇠를 가지고 아무 때나 들어와서 라면을 끓여먹으면 봄이라도 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컸다.

나 역시 그제서야 그 아이들이 그동안 한 아이의 자취방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먹으며 생활을 해 왔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여고생을 챠팅을 통해 만나서 함께 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안 후 가끔 길에서 그 아이들과 마주쳐도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말해 주고, 혼을 내기가 힘들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의 수업에 들어오는 다른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인터뷰를 했던 교사가 그나마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같이 탁구도 치러 가고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이지 않자 곧 잊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 아이들이 상록야학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물론 그

아이들의 끈기가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야학의 분위기 때문이기도 했다. 야학의 수업 시간은 물론 행사도 모두 30~40대의 아줌마들을 위주로 행해지고 있다. 야학의 나이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 수학시간에 그것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쉬운 계산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것을 빨리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든 여학생이 태반이므로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시를 빨리 합격하고 싶어하는 나이 어린 학생들은 그게 불만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상록야학의 행사를 보면,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술자리문화와 노래방에서의 춤문화이다. 야학의 술자는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대부분 어떤 분위기의 술자리를 고집한다. 술의 종류는 막걸리를 선호하는데, (젊은 층이 많이 있을 때는 맥주를 마시기도 하지만) 상록야학에서 행사가 끝나고 다같이 술을 마시러 갈 때는 대부분 야학 균처의 파전 골목에 있는 '낙서집'이나 그 옆의 다른 막걸리집에 간다. 가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학생, 교사들에게 노래를 촘촘 시키는데, 30~40대 아줌마들이 대부분인 학생들은 주로 그 시대의 유행가 트롯트를 부른다. 그 속에서 대학생 교사들은 무엇을 불러야 할지 굉장히 망설인 끝에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나 '남행열차' 같은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노래를 아는 정도에서 찾아서 부르곤 한다. 간혹 어린 학생이나 어린 교사들이 조용한 발라드를 부르면 나이 많은 여학생들은 노래를 잘 듣지 않고 서로 술을 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술자가 끝나면 대부분 2차로 노래방에 가는데, 처음에는 각 반마다 방을 정해서 부른다. 노래는 거의 흥겨운 트롯트, 그것이 길게 이어진 '트롯트 메들리' 같은 곡을 주로 택하고, 학생들은 노래가 나오자마자 일어서서 격렬하게 몸을 흔든다. 그 속에서 나이 어린 교사들, 특히 나이 어린 신입교사들은 무척 당황해하면서도 같이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기색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나이어린 학생들이 그 문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아줌마들을 자신의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수업시간이나 행사에서 불만이 점점 많아지고, 더구나 행사에서 사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므로 대인관계형성에 문제가 생겨 학교에 나오기가 점점 싫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의 야학은 70, 80년대처럼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잊기가 힘든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권리 찾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야학은 학생들의 성, 연령의 변화속에서 많은 혼란과 같은 것을 겪는 과정기에 있는 것이다.

2) 교사와 학생 그간의 의사소통

상록야학은 중학교 2년, 고등학교 2년과정으로 되어있고, 교실은 중학교 2개반, 고등학교 2개반이 있다. 8개월이 정규 학교의 1년에 해당하는 것이고, 신입생 입학식은 9월 초에 한다. 가을에 학기를 시작하는 것인데, 이는 경정고시가 매년 4월, 8월에 있으므로 이것이 모두 끝난 뒤인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정한 것이다.

상록야학으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이 교무실이다. 교무실에는 정규 학교의 교무실처럼 교사마다 각 개인의 책상은 없다. 몇 개의 책상을 붙여서 가운데에 놓았고, 그 옆으로 새로 산 복사기가 보이고, 그 옆에는 컴퓨터 한 대가 있다. 나무로 된 의자는 너무 오래되어 까칠한 나무가시가 몸에 박힐 정도이다.

교무실의 문이 오른쪽으로 붙어있는 통로는 그자리 쪽에 들어가면 교실로 통한다. 교무실

의 문 바로 옆에는 커다란 유리가 달려있어 학생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 그 유리 밑에는 ‘즐거운 눈인사’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학생들과 교사들이 눈인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유리라고 한 말인듯 하다. 실제로 그 유리를 보며 교무실에 있는 교사들과 지나가는 학생들의 눈이 서로 마주치면 가볍게 눈인사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일 경우에는 어색하게 지나가기 마련이다. 교사들 중에는 두 반 이상 수업을 하고, 오래 상록야학 생활을 해서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하면, 자신이 수업을 하는 한 반의 학생만을 알고, 아직은 상록야학에 어색한 신입교사들도 있다. 신입교사들은(특히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과 눈인사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학생들이 처음 중학교에 입학하면 인원이 약 50-60명에 이른다. 중 1반은 그래서 교실이 가장 넓고, 조용한 곳이다. 그런데 1년이 지나 이들이 중 2-2학기가 되면 그 맞은편 교실로 옮겨야 한다. 그 교실은 바로 회기역 옆에 있어서 약 10분 간격으로 지하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교실도 전의 교실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때 이들의 인원은 20-25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다. 또 1년이 지나 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이들의 인원은 10명 이내로 줄어드는 대신 새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이 생겨나 결국 고등학교 1학년의 인원은 25-30명 가까이로 된다. 이 교실도 역시 중 1반 교실처럼 회기역과 면해 있는 곳 맞은편이므로 훨씬 조용하고, 교실도 중 1반보다는 작지만 중2반보다는 크다. 그러나 이들이 고2-2학기가 되어 또 교실을 옮길 때는 이들의 인원이 다시 10-15명으로 줄어 고 2반은 가장 크기가 작은 교실, 회기역과 면해 있는 시끄러운 교실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학년에 따라 학생수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먼저 학생들 스스로의 끈기가 부족해서 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또한 사회적 원인과 상록야학 내부의 원인이 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70-80년대를 거쳐오는 동안 여성이 교육을 받을 기회는 남성이 교육을 받을 기회보다 현저히 낮았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여성은 같은 형제인 남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은 희생되어야 했고, 심지어 자신은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을 잘 보여준 드라마가 몇 년 전에 MBC에서 한 드라마 ‘아들과 딸’일 것이다. 이처럼 여성은 교육에 있어서 소외를 당해 왔으므로 그들이 자라 40-50대가 되고 이제 경제적 여건이 어느정도 나아졌을 때에는 배움의 한을 풀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배움의 한’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수업시간에 보여주는 그들의 놀라운 집중력과 노력을 생각해서이다. 그들은 나이가 많으므로 수학이나 과학같은 사고의 체계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수록 그 수업시간에 집착하고,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며, 겸정고시가 다가오면 보충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일요일까지 야학에 나온다. 50대 후반이나 심지어 60대의 학생들은 수학시간에 진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해도 칠판에 써있는 것은 무조건 모두 받아적으려 노력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로 거기서 50-60대의 나이 많은 학생들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하는 수업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하지만, 지난 삶에 대한 한과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그런 한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수학이나 과학같은 과목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다른 사람에 맞춰서 하는 진도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칠판에 있는 것을 열심히 받아 적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신이 공부할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나는 이제 너무 늦어버렸다는 한스러움만 남아서 야학을 그만 두는 것이다.

상록야학의 주된 학생인 40-50대가 야학을 그만두는 이유는 대부분 사회적 원인이다. 그들은 우선 가정에서 주부라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무슨 다른 일

을 하든, 가정의 일을 거의 도맡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생각은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강한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 여성이 더구나 밤에 야학에 다니는 것은 가족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하고, 또한 본인도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매일 매일 계속되는 야학에서의 학생과 가정에서의 주부의 역할 모두를 잘 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또한 상록야학의 이들 여학생 중 50%정도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여성도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 남편없이 혼자가 된 경우,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등 여성이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는 많은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야학에 입학했어도, 직장에서 야근을 하는 경우나 집안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빠지게 된다. 그렇게 빠지게 되면 진도를 따라잡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학을 그만 두게 된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10-20대의 젊은 학생들이 야학을 그만두는 이유는 야학의 분위기 자체가 너무 40-50대 여학생에게 치우쳐 그 분위기에 적응할 수 없다는 데 1차적 원인이 있다. 또한 그들이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이유가 경제적 원인이 아니라 다른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학의 교사들은 그러한 이유들을 모두 포용해 주고 관심을 가져 줄만큼 시간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교사들 또한 대학생 아니면 직장인이므로 자신의 주된 시간을 야학에서 보내기가 힘들다. 또한 대학생 교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야학의 수업시간을 갑자기 다른 사람과 바꾸거나, 아예 아무 말도 없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직장인들 역시 갑자기 야근을 할 경우에, 그 야학시간에 대신 수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수업시간은 빙수밖에 없다. 이렇게 교사들이 수업시간을 지키기도 벅찬 경우가 있는데, 더구나 그 외에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과 상담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교사 결강에 대해 글을 쓰라는 부탁을 받고 솔직히 고민을 했다. 이거 상록에서 괜히 미문 될 박하는 거나 아닌가 해서였다. 그래서 편집부로부터 여러 번 독촉을 받으면서도 미루어 오다가 오늘에야 이 글을 쓴다. 상록에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훌륭하시고, 우리가 본받을 게 많은 분들이시다. 요즘같이 폐락과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에,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 분들에게 할 말이 없다.

그런데 교사 분들의 결강문제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좀 사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 결강 그 자체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곳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결강은 절대 안되는 것이다. 결강을 꼭 해야 될 입장이라면 마리 양해를 구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1999년 총학생회장 고 2 「결강, 이젠 그만!」 -

총학생회장은 교사 결강 문제를 놓고 교사들에게 말할 때 무척 조심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가 자신이 약속한 수업시간을 빠지는 것은 당연히 없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연한 것을 교사에게 요구할 때조차 학생들은 조심스러워지는 것이다.

그것은 학생들이 자신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야학에 다니고 있고, 그것은 모두 여러 교사들이 무료로 가르쳐주기 때문이므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교사들에게 감히 뭐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은연 중에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록야학에서는 시험을 2달에 한 번씩 보는데, 어떤 과목을 보기로 약속한 시간에 교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에도 학생들은 마음 속으로는 불만이 있어도 그것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억지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어느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과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말하지 않고, 교과 외의 다른 얘기만 매 번 한다고 해도 그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진 못한다. 물론 그것이 심해지면 간혹 어떤 학생이 “선생님, 수업해요”라든지 “선생님, 좀 쉽게 가르쳐 주세요”같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간접적으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다.

간혹 상록야학의 학생이 교사를 심할 정도로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정규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단순히 속으로 짹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표출된다. 몇 년 전에 어떤 학생이 자신보다 서너살 많은 여교사를 짹사랑해서 여교사를 거의 스토퍼 수준으로 괴롭히다가 끝내는 영동교를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또 내가 사귀고 있는 남교사를 짹사랑하는 10살 아래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우리가 같이 있는 걸 본 후로 나에게 전혀 인사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내 핸드폰으로 욕을 담은 메세지를 보낸 일도 있다. 그 여학생은 지금은 야학에 다니지 않지만, 17살인 그 아이는 대검²⁾을 지난 4월에 합격하고 나서 야학에서 가는 수학여행에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여행 내내 나를 못 본 척했다. 또한 지금도 가끔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한다거나, 메일을 보낸다. 또 다른 경우를 보면, 중 1반에 밭음을 조금 이상하게 하는 한 아이가 있다. 잘 들어야 밭음을 알 수 있는 그 아이는 자신보다 2살 많은 남교사를 짹사랑한다. 남교사는 그 학생과 계속 친하게 지내왔고, 이를 안 후에도 계속 친하게 지낸다. 하지만 그는 그 학생을 한 번도 진지하게 자신의 연애 상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상상조차 꺼려한다. 그는 그 학생 앞에서 다른 여교사에게 소개팅을 시켜 달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 것을 보면서 여학생은 자신이 이를 수 없는 사랑임을 깨닫고 포기하지만, 교무실에 있는 그를 보러 쉬는 시간이면 와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을 지금도 자주 보게 된다.

정규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결혼까지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상록야학에서는 그런 경우는 정말 생각하기가 힘들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볼 때, 처음부터 마음의 벽을 갖고,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배우는 자들이라는 전제 하에 그들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친절을 베풀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자신에게 다가서는 것은 차단하는 것이다.

신림동에 있는 ‘남부야학’의 경우 학생을 ‘학강’이라고 부르고, 교사를 ‘강학’이라고 부름으로써 교사와 학생 간의 커다란 간격을 조금이라고 줄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상록야학에서는 이런 단어가 없다. 상록야학은 정규 학교와 비슷한 교실 구조 속에서 정규학교와 비슷한 과목들을 가르치고, 교사와 학생이라는 정규학교와 똑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거리는 정규학교 못지 않게 크다고 할 수 있다.

3) 과도기 속의 상록야학

① 주 5일제 수업

96년에 주 5일제 수업제도에 대한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수업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우므로 토요일을 빼고 주 5일제 수업을 하자는 제안이 그 당시 신입교사들에게서 나왔다. 그러나 상록야학에 오래 있었던 교사들은 주 5일을 하면 학생들이 수업의 리듬이 깨지고, 또 토요일을 빼면 교양, 한문, 음악, 미술 같은 과목들을 뺀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검정고시를 위한 야학을 되어 버린다면서 반대했다. 두 집단이

2)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해 주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단, 대학입시제도에 따라 수능을 봐서 대학에 합격해야 함.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공청회가 있었는데, 학생들은 결국 주 6일제에 더 많이 손들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주 6일 수업을 하면 모두 나오지 못하고, 특히 토요일에는 빠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더 많이 수업을 해 주면 좋다는 생각과 웬지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욕심으로 인해 주 6일제 수업에 더 많이 찬성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논의의 결과는 있었다. 그 전에는 공휴일에도 수업을 했는데, 절충안으로 공휴일은 쉬게 되었다. 또, 매년 수학여행을 가고, 매년 '상록의 밤'이라는 학예회를 하고, 매년 '일일 호프'를 했었는데, 그것이 부담되므로 2년마다 하기로 했다.

② 교감선생님

상록야학의 중요한 중심축으로 교감선생님을 들 수 있다. 교장선생님은 상록야학의 개교부터 재정적 측면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으로, 지금은 중요한 학교 행사때만 와서 '교장 선생님 말씀'을 하시는, 상록야학에 있어 형식적인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교감선생님은 다르다. 개교 이래로 상록야학의 실제적인 거의 모든 일들을 혼자서 해 왔다. 지금도 4반 모두 국어 수업을 한 시간씩 무조건 한다. 일년의 시간표를 정할 때, 교감선생님의 국어 수업시간은 그가 원하는 시간에 배치한 후에 나머지 수업 시간표를 정한다. 그가 정하는 수업 시간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또한 그가 들어가는 네 반의 1시간의 국어 수업시간은 누구도 할 수 없다. 국어 시간이 3시간 있는데, 그 중에서 2시간은 다른 국어 교사가 하고, 1시간은 교감선생님이 하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이렇게 한 과목에 교사가 둘일 경우에 시험 문제를 나눠서 내고 한 시간에 시험을 보는데, 유독 국어 시험만 두 시간에 걸쳐 따로따로 봐서 나중에 두 개의 점수를 합치는 것이다.

(인터뷰 中-수학여행의 회계를 잠시 맡은 교사)

회계가 힘들대. 회계선생님이 그러는데, 야학의 돈이 몇 억 있는데 그건 교감선생님 이름으로 통장에 있고, 그 선생님이 관리해. 회계선생님이 관리하는 건 몇 백 뜯어야 더 관리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회계보고를 교감선생님한테 해야 된다. 정말 이상하지? 구청에서 기부금 나오는거 다 저금하게 한대. 교사 회식비용으로 잘 안 쓴대는 거 있지. 좀 써도 되는데… 교사 회식비용으로 나온 돈도 있는데… 내가 교사회비 안 냈더구 하니까 회계선생님이 내가 맡래. 야학에 돈 많대. 그 돈이 꼭 필요한 것두 아닌데 걷는 거래.

이처럼 상록야학은 회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교감선생님이 담당하고, 교무부장 역할을 혼자서 해 왔는데, 주 5일제 수업 논란이 있은 후에 교무부장을 새로 만들고, 최교사는 교감선생님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 때 처음으로 교감선생님, 교무부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교무부장을 젊은 교사로 해서 야학을 많이 바꿔보자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교감선생님은 상록야학의 많은 부분을 주도해 나갔고, 교무부장은 생각만큼 많이 바꾸지 못했다.

교무부장의 임기는 1년인데, 지금의 교무부장이 교사회의를 거쳐 시험요일을 바꾼 적이 있었다. 그 때, 교감선생님은 교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시험요일이 바뀐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즉각 다시 바꿨다. 이것을 놓고 교무부장이 교사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또, 교무부장이 지금의 상록야학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라고 요구했지만, 교감선생님은 회계를 맡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몇 백만을 밝혔을 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③ 월반, 편입 학생

상록야학은 중 2년, 고 2년 과정으로 되어 있다. 학생이 처음 중학교 과정에 입학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과목을 모두 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중학교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중학교 2년 과정을 다 마쳐야 고등학교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을 하다가 40~50대 여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느리게 나가는 진도에 불만을 갖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상록야학의 교사들, 특히 교감선생님과 야학에 오래 있던 교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한다. 이 교사들은 그 학생들이 월반을 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까지 월반을 부추기게 되고, 월반을 해도 진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반 분위기에 적응하기도 힘들다고 하면서 반대한다.

또한 상록야학은 7, 8월에 주로 상록야학 근처의 지역에 신입생 광고를 붙이고, 8월에 신입생을 모집하여 9월 초에 입학식을 한다. 그런데 입학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입학식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을 때에는 학생들을 받아주지만, 학기가 시작된지 한참 후에는 학생들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나중에 온 학생들은 처음 온 학생들과 진도가 많이 차이나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중간에 들어오면 반 분위기에도 적응을 잘 할 수 없고, 같이 어울리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록야학의 교사들은 4반을 각각 분리해 놓고, 그 반의 분위기도 각각 다르다고 규정짓고 있다. 또한 그 반의 구성원은 처음부터 상록야학의 과정에 따라 상록야학에서 규정한 과목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지 과정의 중간에 들어오거나, 과정의 중간에 일부를 건너뛰는 것은 좋지 않다고 규정한다.

태청야학에서는 학생 본인이 월반을 원하는 경우에 담임과 주임 교사가 학생의 실력 점검을 통해 허용되고 있습니다. 태청야학의 경우 과목별(수준별) 분반 체제이기 때문에 월반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성급한 단정일 수 있으나 태청야학의 존재의미는 검정고시를 패스하는데 있어 노력자로서의 역할에 있는 것 같습니다.

파랑새야학의 경우 중등 1년, 고등 1년 과정으로 수업 자체가 촉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월반의 여지는 없고 유급의 상황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나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진행의 속도가 부담이 되기에 진도를 앞서나가는 학생들의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월반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입학 초기에 본인의 실력대로 빙어동이 있어서 반 분위기 저해나 편입의 부적응의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랑새 야학의 교감선생님의 말씀이 입학 초기부터 생활공동체로서의 야학의 입장/체제를 강력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에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하는 기능적인 공간으로만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부야학은 10명 안팎의 학생이라서 월반이 유통성있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본인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례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예와 함께 기타 월반이 거론되고 있는 타야학들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반허용에 있어 야학의 규모와 교육기간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시할 만한 점입니다. 야학의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기간이 짧을수록 월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그릴 필요가 적었다고 판단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상록 야학같은 큰 규모의, 교육기간이 긴 야학) 월반허용시 파급되는 바가 크기에 상당히 민감하고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 「신입교육> 월반문제의 인식과 대응」

97년 신입교사 제3토론팀 : 강산봉, 변성연, 이주한 (<http://sangrok.yahoo.co/>) -

이처럼 타 야학의 경우에는 월반문제를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비교적 융통성있게 다루는 데 반해 상록야학은 월반문제를 신중히 고려한다. 2000년에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월반하고자 한 학생이 2명 있었는데, 이들 중 월반이 실제 가능했던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1명 뿐이었다. 그 학생은 검정고시에도 합격하고, 상록야학에 매일 나와서 공부도 열심히 했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의 월반을 허락해 준 과정에는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과의 많은 갈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월반을 허락해 준 것은 요즘 상록야학의 변화의 한 양상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④교사의 과목

99년에 처음 들어온 신입교사들 중, 영어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밭음이 별로 좋지 않다는 몇몇 교사들의 판단으로 윤리교사를 맡게 된 40대의 교사가 있었다. 그 교사는 일 년동안 윤리교사를 했지만, 다음 해에는 영어교사를 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99년에 같이 들어온 한 영어교사가 다음 해에는 바꾸자고 제안해서 그 둘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다. 그러나 그것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했고, 그 반의 담임교사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상록야학은 2년제이므로 한번 과목을 맡으면 2년은 해야 하며,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합의 하에 마음대로 과목을 바꾼 일은 이전에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과목을 바꾸지 못했고, 윤리교사였던 40대의 대학생은 상록야학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 일에 대해 영어교사는 상록야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항의를 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그 뒤로 영어교사는 홈페이지에 야학을 비판하는 여러 글을 올렸지만, 매번 그에 반발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결국에는 영어교사가 썼던 글들이 홈페이지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기까지 했다.

결론-상록야학을 나오기

상록야학은 지금 과도기에 놓여 있다. 야학이라는 고정된 조직의 형태 안에서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껏 특정한 야학의 문화를 형성해 왔으며, 그것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야학의 학생층이 변화했고, 학생들이 야학에서 원하는 것들도 변해 왔다. 그들은 이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자 하는 욕구가 뚜렷하게 있는 것이다. 그들이 그러한 뚜렷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고된 생활에도 불구하고 야학에 꾸준히 나오는 것이다. 그들의 그러한 욕구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이것을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록야학은 야학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학생들만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중도 탈락자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있다. 나이 어린 학생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을 시간이 없고, 교사와 학생 간에는 벽이 존재한다.

상록야학은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존재해 왔으며, 견고한 조직적 틀 위에 놓여 있다. 남부 야학이 99년에 교육청의 폐교조치를 받고 땅 주인의 이전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남아 있는 인원은 고작 몇십명 뿐이었고, 남아있는 돈도 얼마 없었다. 그들은 그 때 심각한 존폐 위기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상록야학은 그러한 존폐위기까지 간 적이 없다. 중간에 한 번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서 이 곳으로 이전한 이래로 앞으로 더 나은 공간으로의 이전까지 바라보고 있다.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에 이전할 준비까지도 미리 하고 있는 것이다. 튼튼한 재정적 기반 아래서, 개교부터 깊게 뿌리내린 교사들의 견고한 체제속에서 상록야학이라는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상록야학은 그러한 체제의 견고성에서 탈피하여 점차 개방적으로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도 역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고정된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상록야학은 '야학'이라는 이전의 개념을 부정하면서 이 시대의 새로운 역할과 개념을 모색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게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제 상록야학은 인터넷 수업까지 시도하고 있다. 아직은 재정적, 공간적 한계가 있지만 변화에 발맞추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 속에서 상록야학만이 갖는 색깔, 상록야학이 가지는 역할을 계속 찾고자 한다.